

# 한국출판의 아킬레스건 '도서유통구조'

## 서점대형화 추세 속에 일산단지건설추진은 난항 겪어

오랫동안 우리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도서유통 부문은 올들어 그 개선의 움직임이 여느해보다 폭넓게 전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10위권에 육박한다는 국내 출판산업의 규모는 그 외양에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판계에서 제기돼왔다. 특히 도서유통체제가 지닌 전근대적인 낙후성은 출판사와 서점의 영세성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좀처럼 그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 더욱이 출판시장 개방이 97년 이후로 유보됐지만 유통시장은 93년에 도매업을, 95년에는 소매업을 개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국내 도서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큰 타격과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위기감이 출판계로 하여금 올해를 유난히 도서유통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서점인 영풍문고의 개장과 교보문고의 재개장, 서울출판유통 등 대규모 유통센터의 발족, 그리고 난항을 겪고 있는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도서유통 문제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건들로 꼽힌다.

### 서점대형화 추세 반영한 교보, 영풍개장

먼저 영풍문고와 교보문고의 개장은 80년대 이후 계속되는 서점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면서, 출판사와 서점간의 유통구조가 점차 대형서점 위주로 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규모와 개장시기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영풍문고가 지난 7월 14일 예상보다는 작은 매장규모로 개장했다. 종로 일대 기존의 종로서적, 교보문고, 을지서적과 함께 도심지 대형서점이 형성에 한 몫을 차지하게 된 영풍문고는 서가 길이 18.7km, 12만종 120만권의 책을 전시할 수 있는 매장규모에 문구점, 음반점, 정보플라자, 이벤트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서매장과 별도의 층에 마련해놓고 있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6월 1일 매장확장 및 보수공사를 위해 휴점에 들어간 이후 꼭 1년만인 지난 5월 30일 재개장함으로써 그동안 재개장 여부를 둘러싸고 무성했던 소문들을 일축했다. 종래 1천5백평에서 2천7백평으로 대폭 늘어난 서점공간은 단일서점 규모로는 세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실제 순수한 서적진열공간은 2천2백여평으로 15만종 1백50만

### 영풍과 교보의 개장은 80년대 이후

### 계속돼온 서점의 대형화 추세를

### 반영하면서 출판사와 서점간의

### 유통구조가 점차 대형서점 위주로 변하고

###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 대형유통기구의 설립을 둘러싼 일련의

### '희비극'은 도서유통구조의 현주소와

### 함께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코 쉽게

###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출판환경을

###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권의 책을 전시함으로써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책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이 서점측의 설명이다.

이 두 대형서점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기존의 대형서점에 비해 지나치게 외향에 신경을 썼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종의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점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출판계가 도서유통문제와 관련해서 이들 서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판매관리시스템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ISBN 제도에 따라 현재 신간의 약 40% 정도가 바코드를 인쇄해 서점에 배포되고 있는데, 이들 서점에서는 POS용 서점 자체 라벨을 따로 만들어 부착함으로써 출판유통 부가가치통신망(VAN) 구축의 초기단계부터 큰 장애물로 등장하게 된 것. 이른바 '소스마킹'과 '인스도어마킹'이 혼재해 도서유통의 일관된 POS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점측은 아직 ISBN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현재로선 서점 자체의 POS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지만 차츰 서점과 출판사간의 데이터 호환이 넓어지면서 자체 라벨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서점 개장에 따른 유통창구의 다원화현상도 도서유통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즉 현재 도매상, 소매상, 직거래의 세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지던 도서유통구조가 대형서점의 확산으로 크게 흔들리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서점이 많이 생기면서 물량이 대규모라는 이유로 소형서점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소매



서점 대형화 추세에 가세해 지난 7월 14일 개장한 영풍문고

서점이 출판사 직거래보다 도매상과 거래를 선호하기도 해 유통구조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 서울출판유통의 설립과 일산출판단지의 난항

도서유통의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출판사와 도매서점인들이 공동출자해 지난 11월 26일 설립한 (주)서울출판유통(대표 최선호)은 도서유통문제의 활로를 터줄 청신호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도서보급에서부터 운송과 배본, 수급 등 유통의 전과정을 업무로 하는 서울출판유통은 지난 11월 26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업무개시를 위해 현재 준비작업 중이다. 경기도 이천의 8천1백평 대지에 내년 2월말까지 1천3백평 규모의 유통창고를 1차로 완공하고, 2천4백평 규모의 도서보관창고공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지를 예정인데, 1차로 유통창고가 만들어지면 30~40개의 출판사를 입주시켜 이들 출판사책을 전국 서점에 배본·배송하는 일을 즉시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출판유통측은 2차 창고건립이 끝나면 입주출판사가 1백~1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체 4천여서점 중 1백여곳에 전산망을 구축, 유통전산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예상외로 순조롭게 추진된 서울출판유통과는 달리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의 추진은 올 한해 난항을 거듭했다. 도서의 제작·유통체계, 관련정보의 교류와 교육시설을 한곳에 묶어 영세출판사의 난립을 막기 위한 출판계의 자구책으로 지난 90년 1월 3백60개사가 6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설립한 일산출판문화산업

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정부의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과 때를 같이해 그동안 문화부·건설부·토지개발공사 등 관련부처에 기본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친 구체적 계획안 제출은 물론 심포지엄을 통해 출판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업을 펴왔다.

그러나 출판단지 건설의 난제였던 부지확보 문제가 올 6월경 해결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토지개발공사와의 토지매입 대금 격차로 계약 체결에 실패함으로써 난항에 빠지게 됐다. 조합측은 작년부터 부지분양가를 놓고 토개공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는데, 지난 8월말에 이르러 토개공은 당초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해 감정가로 분양해줄 것을 기대했던 조합측의 예상과는 달리 일반상업용지 가격으로 지가를 고시했던 것. 이에 대해 조합측은 토개공의 매각공고를 철회, 재감정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부처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아직까지 부지 매입가에 대한 토개공과 조합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담보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산출판단지의 건설은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형유통기구로 출범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만큼, 비록 시간은 걸릴 지라도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아래 꾸준히 추진돼야만 한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이다.

대형 유통기구의 설립을 둘러싸고 올 한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유통구조가 지닌 심각한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을 위한 출판계의 노력이 결코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출판환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 정소연 기자